

## 5. 베네수엘라, 국민투표 이후

마르가리타 로페스 마야\*

---

2007년 12월 2일 개헌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승리함으로써 우고 차베스는 포용적이고 온건한 일련의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치안과 식품수급 같은 민감한 분야를 비롯해 심각한 오류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자 내각을 개편했다. 그러나 국내 반대파에게나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투쟁적인 스타일을 버리지 않았다.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PSUV: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을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변모시킬 마음도 없는 듯싶다. 결국, 차베스의 변화나 오류 시정은 ‘21세기 사회주의’를 향한 그의 전진 계획을 본질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다.

[Política/ Referéndum Constitucional/ Socialismo/ Hugo Chávez/ Venezuela;  
정치/ 개헌 국민투표/ 사회주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

2007년 12월 2일 ‘21세기 사회주의’를 향한 베네수엘라 사회의 급속한 전진을 목표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안한(그리고 국회가 총 69조를 추가할 정도로 확대 수정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94%의 개표 결과가 담긴 선거관리위원회의 두 번째 고시에 따르면, 차베스가 제안하고 국회가 약간 추가한 A항에 대한 반대는 4,521,494표이고

---

\* 역사학자이자 사회과학 박사. 베네수엘라 센트랄대학의 발전연구센터 연구교수이며, 『검은 금요일에서 국민소환투표까지』(Alfadil, Caracas, 2005), 『민중투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기 라틴아메리카의 민중 저항』(Nueva Sociedad, Caracas, 1999) 등의 저자이다. 이 글은 《누에바 소시에다드 Nueva Sociedad》 2008년 5-6월호, 통권 215호에 실렸다. [역주] 2004년 국민투표를 차베스 측에서는 신임투표(referendo ratificatorio), 반 차베스 측에서는 국민소환투표(referendo revocatorio)로 정의했다. 따라서 이 글의 필자는 차베스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0.65%), 찬성은 4,404,626표였다(49.34%). 1.31%의 차이가 난 것이다. 국회 자체적인 개헌안에 대해 묻는 B항의 경우, 반대와 찬성의 차이는 조금 더 컸다.

2006년 대선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볼리바르주의 지지표는 14%, 거의 300만 표가 감소했다. 반대표는 겨우 211,000표 증가했을 뿐이다. 반대 세력의 승리라기보다 불확실성과 엇박자의 정치 게임을 벌인 볼리바르주의의 패배였다.

## 패배에 대한 해석

당혹감과 걱정으로 점철된 차베스주의 진영의 초기 반응들이 지나가고 난 뒤,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대통령과 그의 제후자들의 해석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잃어버린 지지표의 복원을 차츰 겨냥하고 있다. 2006년 제안한 사회주의 모델을 향한 진전이라는 목표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전술적으로는 온건과 포용 기조의 언행을 구사하게 되었다.

2007년 12월 31일 차베스는 사면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큰 폭의 사면법에 서명하여 수많은 사람이 재판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2002년과 2003년의 봉기에 참여한 이들이다. 내각도 개편하였는데, 이는 정책 기조의 변화라기보다는 치안, 식품수급, 주택 문제, 민중단체들과의 취약한 소통과 협력에(이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끼쳤다)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월 6일 차베스는 수정(revisión), 시정(rectificación), 재활력(reimpulso)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3R 정책'을 제시했다. 일반인 지지자들

을 독려하여 2008년 11월에 실시되는 주지사와 시장 선거에 대비하게 했고, 입후보자는 “밀실회의나 정당 간 협상이나 차베스의 지명의 산물이 아닌 일반인 지지자들의 결정의 산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1)</sup>

같은 날 차베스는 창당대회 준비를 통해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 창당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1998년 첫 번째 대선을 위한 연합전선 ‘애국의 축(Polo Patriótico)’을 되살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의 정치 강령에 다른 정당의 잔존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2007년 내내 거세게 반대하던 사안이다. 차베스는 연합세력에게 정당 해산을 종용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배제시키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기획의 본질인 기업인과 중산층을 끌어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혁명가들끼리의 제휴를 넘어서는 거대한 제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린 혁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층을 환영해야 하며, 분파주의나 극단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1월 11일 차베스 대통령은 국회에 2007년 국정보고를 했다. 연설에서는 9년간 통치하면서 자신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수치를 제시했다.<sup>2)</sup> 연설 말미에 차베스는 집권했을 때부터 자신이 수행한 세 가지 임무를 언급하고, 각각에 대해 자체평가를 내렸다. 바로 이 평가가 차베스가 이번 국민투표 패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패배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지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국가수반으로서의 임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수반이라면 베네수엘라를 국제무대에 자리매김 시켜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주볼리바르대안(ALBA: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1) 《나시오날 El Nacional》, 2001년 1월 6일.

2) 대통령 연설 발췌문은 포털 사이트 [www.aporrea.org](http://www.aporrea.org) (2008년 1월 18일), 《나시오날》, 《울티마스 노티시아스 Últimas Noticias》에 게재되었다.

de Nuestra América),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sup>3)</sup> 미주 통합을 위한 각종 구상을 치적으로 언급했다. 차베스는 혁명수반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만족했다. 베네수엘라에 사회주의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이를 막지 못하리라고 평가했다. 차베스에 따르면, 이 혁명은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화를 우선시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차베스는 자신의 취약점으로 바로 정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꼽았다.

차베스는 정부의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차 없이 지적했다. 불안정성, 물자부족, 계획성 부족, 교도소 상황, 면책, 부패, 관료주의적 행정 등을 언급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차베스는 적과 불만세력에 대한 공세, 이들을 끊임없이 자극한 신랄한 연설 등으로 인한 집권 기간 중의 고질적인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차베스의 게임규칙을 받아들이고 정부와의 대화를 요청해 온 야권 일각을 인정하는 듯한 어떠한 발언도 없었다. 과거의 반민주적 인사들과 결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권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동시에 경주해 온 이 야권은 현 민주주의의 정치적 성숙은 물론이고 후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는 데 공헌할 만한 중산층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차베스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것인데다가, 그에게는 정치적 양극화가 이득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투표 패배 한 달 뒤에 행한 연설은 대체로 차베스가 도달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그의 목표는 더 효율적인 행정을 통

3) [역주] 베네수엘라와 카리브 국가들의 석유동맹.

해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지 사회주의 제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입증하는 좋은 예가, 야권의 요구가 없더라도 차베스 스스로가 2010년 다음 두 가지 질문만을 놓고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1.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2. 무제한 연임 허용을 위해 헌법의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sup>4)</sup>

## 몇 가지 행동

개헌 국민투표 패배 뒤에 차베스가 개진한 생각들은 그의 최근 몇 가지 행보를 이해하게 해준다. 가령 대외정책에서 미국과 콜롬비아와의 지속적 갈등을 설명해 준다. 국회 국정보고 연설에서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알바로 Uribe 대통령에게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과 민족해방군(ELN: 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에 교전상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이후 한동안 콜롬비아와 첨예한 긴장을 야기했다.

이 요구는 하루 전날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사상 처음으로 일군의 납치인사들을 풀어주기로 함으로써 차베스가 얻은 긍정적인 국제적 영향력을 수포로 돌렸다. 베네수엘라 국회에서 행한 요구로 그 후 몇 주 동안 콜롬비아에서 Uribe의 지지도가 오르는 데 공헌했으니 차베스는 너무 서툰 짓을 한 셈이다. 차베스의 요구는 라틴아메리카 어느 국가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쿠바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다들 기억하겠지만,

---

4) 《올띠마스 노띠시아스》 2008년 1월 13일.

콜롬비아 군이 에콰도르 영토에 있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캠프를 공격한 뒤인 2008년 3월에 차베스는 일련의 발언을 했고, 이는 처음에는 게릴라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해석되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대화 뒤에 차베스는 발언수위를 낮추고, 주도적인 역할을 자제했다. 대신 리우 그룹과 미주기구 같은 기구들로 하여금 역내 통합을 저해하고, 무력충돌을 조장하는 세력을 규탄하게 하였다.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과 관련된 최근 결정들은 전반적이고 민주적인 역동성을 강화하기에는 빈약한 수정안일 뿐이다. 극단적인 볼리바르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국회의원 루이스 따스콘은 제헌의회의 차베스 진영인 국회 개혁파(Bloque del Cambio)에서 제일 먼저 축출되었고, 또 창당도 하지 않은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에서도 축출되었다. 국회 감사위원회에서 인프라부(部) 장관 다비드 까베요의 부조리를 고발한 것이 원인이었다. 까베요는 차베스의 최측근 중 하나로 볼리바르주의 내부의 좌파 인사들에게는 ‘태생적 우파’의 우두머리로 인식되고 있다. 국회의장 실리아 플로레스는 따스콘이 공개적 장소에서, 그것도 대중매체 앞에서 고발을 감행한 점을 비판했다.

따스콘의 고발을 잠재우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지난 2월 까라카스에서 열린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 창당전당대회는 간접선거에 의한 국민지도부 선출 방식을 추진했다. 먼저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지도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선출되어도 좋을 후보자 군을 상당히 줄인 대통령의 손가락이라는 또 다른 방식도 도입되었다. 그렇다 해도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의 국민지도부 선출은 평당원들이 밑으로부터 정당성을 어느 정도 부여한 집단지도체제를 볼리바르주의에 선사했다.

## 글을 마치며

2008년 11월의 지방자치선거는 대통령과 체휴자들의 전략이 옳았는지, 그 전략이 득표력 복구로 이어질 것인지 혹은 반대로 차베스의 힘이 지속적으로 퇴조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까지 정부는 식품수급,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계획성 부족, 농목축업 정책의 비효율성과 불충분함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점포 선반에서 사라진 우유, 빵, 쌀 등의 생필품 수급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식량과 의류의 70%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시온(misión)<sup>5)</sup>과 기타 공공정책을 통해 석유수출 수익이 한층 효과적으로 분배되면서 서민층 소비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어제나 오늘이나 오로지 석유수익 덕분이고, 이 수익은 1인당 수익으로 환산할 때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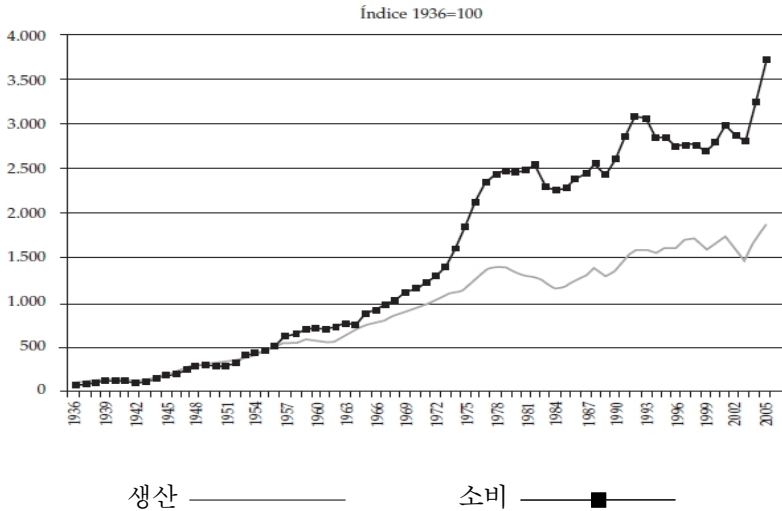
이런 의미에서 볼리바르 혁명은 다시 한 번 마술적 국가(Estado mágico), 즉 20세기 상당 기간 동안 근대화를 꿈꾸던 국가를 부활시키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근대화는 베네수엘라 국내의 어떠한 기여도 없이 오직 국제 탄화수소 시장에서 창출되는 석유산업 잉여금만 가지고 엘리트들이 지탱하던 근대화였다.<sup>7)</sup> 지금 그 잉여금은 모호한 ‘사회주의’를 재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다. 이 수익이 감소하거나 충분히 늘지 않으면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자원이 있지만 부를 창출할 능력이 없는 국가라는 현실로 말이다. 그러면 환상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5) [역주] 차베스 정부의 각종 사회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든 풀뿌리조직.

6) Asdrúbal Baptista, *Bases cuantitativas de la economía venezolana 1830-2001*, Fundación Empresas Polar, Caracas, 2007.

7) Fernando Coronil, *The Magical State*,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1997. (스페인어판: *El Estado mágico. Naturaleza, dinero y modernidad en Venezuela*, Nueva Sociedad, Caracas, 2002).

<도표 1> 베네수엘라: 생산과 소비, 1936-2005



출처: Asdrúbal Baptista, ob. cit.

위 그래프는 볼리바르주의가 집권한 거의 10년 동안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혁파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 중반부터 생산과 소비가 아예 따로 놓고 있다. 석유수익이 생산과 소비의 간극을 메우고 있을 뿐이다.

(우석균 번역)